

수입 완전 자유화 이후

**콤팩트 카메라 대일 의존 급격 상승
7월 한 달만에 전년 대비 199.1%**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해제된 지 한 달만에 콤팩트카메라의 일본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99. 7. 1일자로 수입 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콤팩트카메라는 7월 한 달 만에 일본제품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99.1%가 증가했다.

**1. 1999년 7월 1일 해제품목
수입동향('99. 7. 1~7. 31)**

'99. 7. 1일자로 해제된 품목은 휴대폰, 대형칼라TV, 전기밥솥, VTR, 자동카메라, 승용차 등 대부분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다. 해제된 16개 품목 (HS10단위 기준)의 대일 수입은 해제 1개월만에 전년동월 대비 110% 증가했다.

앞으로 콤팩트 카메라를 포함한 전자제품, 주방용 도자제품, FDD와 음향기기의 수입

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체 전자제품은 국내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국산제품보다 품질대비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다.

올 상반기부터 동원정밀(주), SK상사(주), 아남인스트루먼트(주), (주)우성포토교역, 정안물산(주), 한국후지필름(주) 등의 업체들은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다. 그간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 업체로부터 콤팩트 카메라를 들여와서 국내 경쟁력을 점치며, 기존 서비스망 정비와 새로운 유통망 확보에 나섰다.

이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판촉전을 벌이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판매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며 국내 콤팩트 카메라 시장은 삼성항공(주)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입선다변화 해제 이후에도 별 우려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선부른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아니다. 일본 카메라 업체나, 국내 수입 업체나 아직 본격적인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체 수입 카메라의 양이 늘어나면서 광고전을 펼칠 것은 자명한 일. 여기에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밀수돼 팔리고 있는 일체 카메라의 '블랙 마켓'도 가세해, 유일하게 국내 카메라 생산 업체로서 콤팩트 카메라시장을 주도해 오던 삼성항공(주)과 일대 접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99. 7. 해제 품목 대일 수입 증가율

카메라	휴대폰	전기밥솥	VTR	칼라 TV
199.1%	급증	369.2%	57.1%	56.3%

〈표 2〉 1999년 7월 이후 콤팩트 카메라 대일 수입 증가

단위 : 천불, %

구 분	'97. 7월	'98. 7월	'99. 7월		
			'98년 동월대비	'97년 동월대비	
총수입 총계	12,643,411	7,091,443	9,758,427	37.6	-22.8
일본	2,456,314	1,299,297	1,945,070	49.7	-20.8
해제품목 총계 (16개품목)	87,105	24,317	72,076	196.4	-17.3
일본	22,439	10,198	21,431	110.1	-4.5
35mm 자동카메라	3,449	703	1,493	112.4	-56.7
일본	680	67	200	199.1	-70.6

〈자료:관세청〉

〈표 3〉 1999년 1월 이후 SLR 카메라, 복사기 대일 수입 증가율

단위 : 천불, %

구 분	'97. 1~7월	'98. 1~7월	'99. 1~7월		
			'98년 동월대비	'97년 동월대비	
총수입 총계	87,055,322	54,287,322	64,053,411	18.0	-26.4
일본	16,917,636	9,751,094	12,445,444	27.6	-26.4
해제품목 총계 (32개품목)	579,332	255,757	355,224	38.9	-38.7
일본	138,059	59,803	115,144	92.5	-16.6
SLR카메라	1,227	751	3,986	430.4	224.8
일본	61	50	2,709	5,351	4,377
복사기	21,625	4,707	9,612	104.2	-55.6
일본	14,173	1,964	7,051	259.0	-50.3

〈자료:관세청〉

한편 삼성항공산업(주)은 수입선다변화 해제에 맞서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신제품 13개 기종을 출시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개시하고 있다. 또 7월 초부터 세계 판매 1위 기념 이벤트를 '99 줌 앤 줌 페스티벌'을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고객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주)아남인스트루먼트는 유

통점 다각화와 A/S망 확충에 힘쓰고 있다. 특히 A/S점은 올해 들어서 새로 12개 망을 확충했으며, 올해 말까지 20개로 늘일 예정이다. 또 오피니언 리더층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카메라 순회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진부 기자, 프로작가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고 있다.

2. 1999년 1월 1일 해제품목 수입동향(99. 1~7월)

한편 99년 1월 1일자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 32개 품목(HS10단위 기준)은 해제 이후 7개월 동안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8.9%의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대일 수입은 92.5%가 증가한 115백만불로 대일수입 비중은 약 10% 증가했다.

특히 SLR카메라, 캠코더, 주방용 도자제품 등 경쟁력이 높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일제 소비성 물품의 수입이 전체 수입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SLR카메라는 5,351%, 캠코더는 2,627%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복사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일본 수입 비중이 259%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SLR카메라는 199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수입액이 398만 6천만달러(작년 같은 기간 대비 430.4% 증가)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들어온 금액은 270만 9천달러(전체 수입액 중 70% 차지)였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5,351%가 증가한 양이다.

올해부터 수입이 전면 자유화 된 32개 품목의 평균 증가율이 98년 대비 38.9%(이 중 일본 비중은 92.5%)인 것에 비해서 극심한 수입 증가, 일본 의존도를 볼 수 있다.